

광주·전남 '예산 홀대' 現정부서 더 심해졌다

국비 반영률 50%대로 추락
지역 정치권 무기력도 한 몫

광주시·전남도의 국비 반영률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최대 99%에 이르던 광주·전남의 국비 반영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50%대까지 추락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인구 및 기반시설 위주의 예산 배정 등 지역 소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데다 지역 정치권의 미진한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무기력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141건 3조2617억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 반영된 것은 100여건에 2조 2000억원대(KTX예산 등 포함·반영률 67%)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사업과 광주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등의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부분의 신규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499건 8조2492억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341건 4조7269억원으로 반영률은 57.3%에 그쳤다. 50%대의 정부부처 반영비율은 역대 처음으로, 전남도의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겠겠다.

또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예산 감축 또는 누락된 만큼 정부안 논의와 국회의결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고 지원비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다 MB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50%대까지 급락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 국비 반영률 확정안 (단위: %)

연도	광주시	전남도
2009	99	92
2010	91	90
2011	90	89
2012	78	82
2013	74	77
2014	69	58

※2014년도 국비반영률 강원 112%, 경남 99%, 전북 90%, 대구 88%, 제주 81%

로 국비를 확정된 2009년 요청액 대비 최종 국비 확보율은 99%였으며, 2010년 91%, 2011년 9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끝자락인 지난 2012년 국비 확보율은 78%로 추락했다. 2013년에는 더 하락해 140건 1조9536억원의 건의액 중 국회 확정액은 134건 1조4441억원(74%)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더욱 컸다. 최종 반영비율은 69%로,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전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 2012년 346건 8조7782억원의 건의, 국회 확정액은 560건 7조1940억원으로 82%의 확보율을 보였다. 이후 2013년에는 77%를 기록하던 지난해의 최종 반영률은 58%로,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했다.

반면 지난해 강원도는 신청액보다 더 많은 112%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으며, 경남 99%, 전북 90%, 대구 88%, 제주 81%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부처의 호남 인맥이 많이 줄어들어 네트워크가 붕괴한 데다 안철수 의원의 등장과 함께 호남권 내 정치권의 분열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3일과 4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市·道, 산하기관장 '인적 쇄신' 착수

윤장현 시장 "선거캠프 기웃거리 인물과 함께 할 수 없다"

전남도, 개발공사 감사 앞당기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조직정비를 마친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적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최근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감사를 앞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 도시공사를 시작으로 10월 27일 디자인센터, 12월 3일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요는 최근 윤장현 시장이 민선 5기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시장은 1일 광주시 월례조회에서 "산하기관장들이 거취표명을 마루고 있는데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18일 확대 간부회의에 이어 산하기관장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윤 시장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일부 산하 기관장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민선 5기 대표 실세로 꼽히는 A원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간부 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는가 하면 시정 일부 공직자의 협조를 얻어 선거공약 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선거 핵심 운동원으로 활동했다. B원장도 특정후보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다. 이 외에도 일부 시정 간부들이 특정후보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은 "민선 6기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적진용이 맞춰져야 하는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캠프나 기웃거리는 인물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면서 "민선 6기만큼은 권력에 붙어 호가호위하는 산하기관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애초 12월로 예정돼 있던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 오는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오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진단 TF 활동계획 보고회까지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엔날레 '푸른길 기차 아지트'

1일 광주시 동구 학동 푸른길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푸른길 해설사들이 만든 '푸른길 기차 아지트'를 둘러보고 있다. 푸른길 기차 아지트는 2014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비엔날레 작가·술 데 있는 거리' 중 하나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시민팀 20곳이 참여해 광주·고, 임동성당, 폴리 등 광주 곳곳을 문화 아지트로 꾸며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아파트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 청약통장 '청약종합저축' 일원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광주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또 현재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규제와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을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준공 뒤 20~40년으로 돼 있는 광주시의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광주에서는 1989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 2년 이상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진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복지시설 추석 온정 식었다
기부금·기탁 물품 예년의 30% ▶6면
슬픈 동물원
우치공원을 동물복지 1번지로 ▶18면

NEW
수분감신기능성
사물(자연)인간미

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올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우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비교 실험: 건조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비교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비율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2. 윤기가 나빠져 탄력 없어 보이는 것 같다	99%	비율	한결 맑아진 느낌이다	99%
3. 단약이 자물라 탄력해진다	98%	비율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98%

*이 실험은 2014년 7월 15일~18일 30대 여성 30명(20~25, 26~30, 31~35)에 대해 실시함